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고전소설을 활용한 논술지도 방안
연구

-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선미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고전소설을 활용한 논술지도 방안 연구

-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곽진석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선미

정선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
준함.

2009년 2월 25일



주심 문학박사 채영희 (인)

위원 문학박사 곽진석 (인)

위원 문학박사 최호석 (인)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2 연구사 검토 -----	4
1.3 연구 내용과 방법 -----	7
2. 논술 교육의 현황과 방향-----	9
2.1 논술 교육의 현황 -----	9
2.2 논술 교육의 방향 -----	11
3. 논술지도를 위한 이론적 배경 -----	12
3.1 독서와 작문의 통합 지도 이론 -----	14
3.2 문제중심 · 과정중심 학습이론 -----	19
4.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지도 방안 -----	29
4.1 「홍길동전」의 교육적 가치 -----	29
4.2 논술지도 모형 -----	35
4.3 논술지도 모형의 적용 -----	39
5. 결론-----	72
참고문헌-----	74

표 목 차

<표 3-1> PBL 방식의 전개과정	-----22
<표 3-2> 과정중심 쓰기과정	-----26
<표 4-1> 과정중심 글쓰기 모형과 문제해결 중심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구안한 수업 모형	-----35
<표 4-2> 차시별 교수 · 학습의 단계 및 주요내용	-----37
<표 4-3> 학습자의 사전지식 진단 설문지	-----41
<표 4-4> 쓰기 전 단계의 1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45
<표 4-5> 학습 내용 추론의 단계	-----48
<표 4-6> 과제 수행 계획서	-----50
<표 4-7> 쓰기 전 단계의 2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53
<표 4-8> 쓰기 단계의 3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64
<표 4-9> 상호 평가 기준표	-----67
<표 4-10> 쓰기 후 단계의 4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70

**A study for teaching method on essay writing with the application of
a Korean classical novel
- focused on the story of [Hong Gil Dong Jeon]**

sun mi jeo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of writing essay through develop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tory of Hong Gil Dong and creating proces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story.

The essay writing aims at enabling students to think problems deeply and widely and enhancing student's capability to logically express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in a sequential way. To achieve this goal, essay writing should be taught centered on problems and process.

Considering the essence of essay writing and the character of learners, this study is going to propose a method for essay writing with practical and specific instruction methods using a Korean traditional story.

In Chapter 2, the current status of essay writing will be reviewed to propose the right direction of essay writing by considering the problems at school and the essence of writing.

In Chapter 3, it will be verified that the instruction of essay writing through the contents of novel based on 'integrated instruction theory of reading and writing' is very effective in improving the capability of student's thinking and expression. And 'the theory of problem based learning and process centered learning' will be reviewed to seek a effective instruction in writing essay.

In Chapter 4, it will be proved that the traditional novel is more effective in instructing essay writing than the contemporary novel and it will reviewed why the story of Hong Gil Dong was chosen for essay instruc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theory from Chapter 3, specific essay instruction method will be propos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tory of Hong Gil Dong.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will be reviewed in a structural prospective. Specifically, a new learning method which can be applicable to school based on problem and centered on process will be created.

In the process of problem based learning, learner will use a strategy to recognize problems by identifying critical problems while reading and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novel. The principle of writing essay based on process will be also used as a strategy to structure the identified meanings and utilize the recognized problems into writing essay.

Four sessions will be arranged for applying the strategies at class considering conditions at school. Each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guideline will be reviewed and the feedbacks will be reflected into teaching and learning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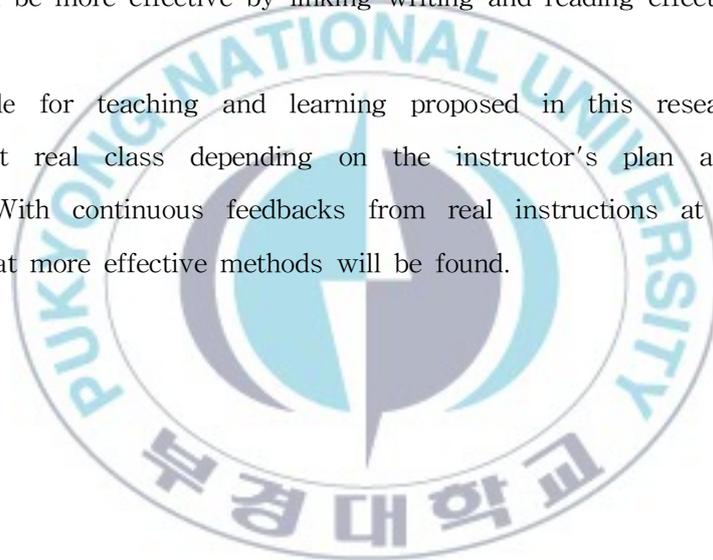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und in organizing the plan of teaching and

learning is to increase the rate of activities based on learners which can motivate students to actively and voluntarily express their thoughts.

Finally, Chapter 5 provides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Through this research, a module for teaching essay will be created using the contents of the Korean traditional novel and various materials will be developed to be used for teaching essay at class. It is believed that essay writing can be more effective by linking writing and reading effectively.

The module for teaching and learning proposed in this research can be modified at real class depending on the instructor's plan and learner's situation. With continuous feedbacks from real instructions at class, it is believed that more effective methods will be found.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현대 사회는 정보나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정보와 지식을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더 높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더 가치 있는 새로운 텍스트로 만드는 인지적 과정의 하나인 논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논술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표현된 글이다. 특히 논술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글이니 만큼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처럼 논술은 문제지각력, 논리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글쓰기이다. 이런 점에서 고등 사고력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논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서와 작문의 통합 교육이 ‘논술’로 대표될 수 있는 만큼, ‘국어과’에서 ‘논술교육’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술도 다른 글쓰기처럼 사고의 결과가 글로 표현된 것이므로 논술하기 전에 충분한 사고와 의미 구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배경 지식의 활성화와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 능력이 부족하므로, 논술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즉 논술에서 학습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안내와 논술 과제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유의미한 상황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학습자는 문제 해결의 글쓰기인 논술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 없이 문제에 부딪히며, 자기 견해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문제점에 의해 방향이 설정된 새로운 독서는 필연적으로 유익할 수밖에 없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술을 위한 독서의 텍스트로 고전소설을 선택하여 고전소설을 활용한 논술지도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고전소설 중에서도 「홍길동전」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논술의 내용 생성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고전소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삶에 본질적인 의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시·공간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고전소설’은 학생들의 사고를 키우기에 적합한 자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논술 지도에 효율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설 텍스트와 논술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은 독서와 작문의 통합 교육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독서와 작문을 포함한 언어 기능은 통합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언어의 전체 영역을 유기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학습자의 사고력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술 지도에 대한 내용이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논술 지도가 이루어지

1) 장 파프(Jean Pappé), 『문학을 활용한 논술』, 현대 신서, 김지영, 「문학을 활용한 논술지도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3, 재인용.

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논술의 본질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술에 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구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고전 소설’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 지도의 모형을 제시하려고 한다.



1.2 연구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학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와 관련된 연구와 ‘논술 교육에 대한 기초 이론 연구나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있다.

먼저 문학 작품 읽기와 논술의 연계를 시도한 연구로는 김권섭(1998), 윤미옥(2004)이 있고,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지도에 관한 기초 이론 연구나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로는 권혁준(1997), 장성욱(2000) 등의 연구가 있다.

김권섭(1998)은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소설 작품을 수용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논술문을 써 보게 함으로써 소설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지는 동시에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증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²⁾

윤미옥(2004)은 문학을 활용한 논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가 전통적인 결과 위주의 논술 지도에 비해 학습자의 논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³⁾ 그리고 이러한 논술 지도가 학생들의 논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논술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권혁준(1997)은 문학 교재를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안을

2) 김권섭, 「서사텍스트와 논술텍스트 연계 지도 방안 연구-등장인물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3) 윤미옥,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읽기를 중심으로 쓰기를 통합하는 방법(유형1)과 쓰기를 중심으로 읽기를 통합하는 방법(유형2)이 그것이다. 유형1은 문학작품을 읽은 다음에 연계된 것이고, 유형2는 사후 쓰기 단계에서 비평하기와 다른 글을 읽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⁴⁾

장성욱(2000)은 시 교육에서 학생들이 시를 창의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읽기 · 쓰기의 통합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협동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 읽기 · 쓰기 통합 활동 중심의 협동 학습이 시 읽기와 시 쓰기 능력 신장에 유용한 방법임을 시사하였고, 시 흥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⁵⁾

지금까지 문학을 활용한 글쓰기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문학 작품 읽기와 작문의 연계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었다. 작품 감상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는 학습자들이 인지적으로 소설 작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며,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논술 교육에 대한 기초 이론 연구나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로는 원진숙(1995), 채경자(2001), 이경선(2003) 등이 있다.

원진숙(1995)은 기존의 텍스트 이론을 바탕으로 논술 텍스트를 ‘필자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라 규정하고, 논술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성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전략 중심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⁶⁾

4) 권혁준,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방안-문학교재를 중심으로」,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5) 장성욱, 「협동학습을 통한 시 교수 · 학습방법 연구-읽기와 쓰기의 통합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원진숙, 『논술 교육론』, 박이정, 1995.

채경자(2001)는 논술문을 잘 쓰기 위하여 또는 잘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의 함양과 함께 논술 작법에 관한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비교, 검토하여 논술 지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지도 방법상의 지표를 정리하였다.⁷⁾

이경선(2003)은 논술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등 사고 능력 배양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학생들이 다방면에서 종합적 사고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즉 학생들의 지식 구조화 과정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사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⁸⁾

이렇게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논술 교육은 결과 중심의 논술 지도를 지양하고, 논술 쓰기의 과정에 학습자가 중심이 되면서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전략 중심의 논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중심의 논술지도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이론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고전소설 「홍길동전」과 논술을 연계한 논술 교육의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7) 채경자, 「효과적인 논술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8) 이경선, 「논술 지도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3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적 방안으로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 이론과 교수모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와 작문의 통합 지도가 ‘논술’이라고 할 때, 논술을 위한 읽기자료로 여러 종류의 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전소설은 논술을 위한 독서의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 고전소설 읽기를 통해 얻게 되는 ‘선인들에 대한 이해’나, ‘현대 우리 삶에 대한 반성’등이 다른 읽기 자료보다 더 좋은 논술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고전소설 중에서 「홍길동전」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면서 TV드라마 등 다른 장르로 제작되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다. 그런 만큼 작품에 접근하기가 편할 것이다. 또한 「홍길동전」은 ‘적서차별’의 신분제도 문제라든지, 주인공 홍길동의 ‘도적 행위’, ‘율도국 건설’ 등이 다양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 만큼 이 문제들에 대한 반응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홍길동전」은 독서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해결·과정중심’ 논술 지도에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논술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향으로 고전소설을 활용한 논술지도에 대해 제시해보려고 한다. 독서와 작문의 통합지도이론을 통해 소설 작품 읽기가 논술지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고, 문제중심·과정중심 학습이론을 논술지도 모형을 구안하기 위한 기본이론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고전소설이 가진 문학적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반 문학작품보다 논술지도에 더 효과적임을 살펴본 후, 문제중심 학습 모형과 과정중심 학습 모형을 통합하여 논술지도를 위

한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홍길동전」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제중심 학습이론과 과정중심 학습이론을 살펴보고 각 모형에 기본적인 토대를 두고 두 모형을 통합, 수정한 모형을 제시하여 수업지도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2. 논술 교육의 현황과 방향

2.1 논술 교육의 현황

논술은 합리성과 논리성을 동시에 갖추고 예상 독자를 설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유형으로써, 논술자의 인지적 수준과 정의적 수준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능동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며, 문제 해결과정이다.

이러한 논술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논술에서 주어지는 논제가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되고 그 수준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서술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무리한 과제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들은 앞으로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갈 중심인물들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이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논술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실생활에서나 배움의 과정에서 모두 요구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논술력 함양은 우리 교육의 비생산성과 편협함을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한 무한 경쟁으로 급격하게 변모해 가는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적응 능력과 선도 능력을 함께 길러주는 일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논술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진지

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능력과 타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선도능력 또한 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강조하고, 논술의 교육적 의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 교육은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먼저 대학 입시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논술 교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논술 교육의 핵심은 논술에 맞게 사고하는 태도와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논술 교육은 모든 교과목의 지식이 통합된 종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은 당장 눈앞의 수능 점수 올리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논술 교육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논술은 통합교과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통합적 사고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술이 입시 과목의 하나로 존재하면서도 현행 교육 과정에 정규 과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논술이 현행 교육과정에 정규 교과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논술이 특정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에서 범교과적으로 교육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교과에서는 서로 자기 교과에서는 논술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발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결국 논술은 국어과의 작문 담당 교사의 몫이 되어 버리기 쉽다. 논술 교육은 범교과적으로 모든 교과에서 논술식 사고의 태도와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풍토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유념할 일이다.

2.2 논술 교육의 방향

논술 교육은 ‘독서와 작문의 통합 지도’를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범교과적인 텍스트를 이용한 논술지도의 특성상 중등 교육 전(全)과정에 걸친 통합 교과형 논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논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논술 교육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술하기 전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 ·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논술에 필요한 사고 경험을 충분히 갖게 하고, 논술할 때에는 이를 토대로 글을 쓰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심의 논술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점진적으로 키워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논술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소설 텍스트 읽기’활동과 같이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 논제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논술 과제가 자신의 관심 밖에 있거나 생소하고 낯선 것일 때에는 더욱더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논술할 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고, 논술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며 무의미한 논술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소설 텍스트를 읽고 토의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문제를 발견 ·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 텍스트 읽기’를 통한 논술지도는 독서와 작문의 통합 지도적 측면에서도,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3. 논술 지도를 위한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논술지도에서 고전소설 텍스트 「홍길동전」을 활용하려고 할 때, 바탕이 되는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기르고, 논술의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쌓는 데 ‘독서’가 좋다. 그리고 많은 ‘읽을거리’ 중에서 ‘고전소설’이 논술지도를 위한 독서의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고전소설은 두 가지의 교육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오랜 시간을 걸쳐 전승해 오는 동안 끊임없이 향유되고 재해석되어 현재에도 일정한 정서적 영향력을 자는 속성이다. 이는 고전소설이 심미적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향유자의 삶의 체험을 확대하는 현재적 실체임을 말한다. 이는 학습자가 작품을 통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체험을 확대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당대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문화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전소설 교육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작품이 하나의 교육 자료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해준다.⁹⁾

이러한 고전소설 작품 중에서 중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인 「홍길동전」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논술지도를 위한 수업지도안을 구안해 보려고 한다. 「홍길동전」은 학습자들에게 논술을 위한 사고의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 생각하여 논술지도를 위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9) 김종신,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이현숙, 「고전소설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27. 재인용.

「홍길동전」은 사회성이 짙은 소설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응행동 등 여러 면에서 학습자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논술은 독서와 작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독서와 작문의 통합지도 이론’을 들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려고 한다. 또한 ‘논술’ 쓰기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글이기에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해결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 ‘문제 중심 학습이론’과 ‘과정중심 학습이론’을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고 싶다. 먼저 독서와 작문의 통합 지도 이론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지도 모형 구안의 바탕이 될 문제중심 · 과정중심 학습이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0) 최취희, 「협동학습을 통한 중학교 고전소설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47.

3.1 독서와 작문의 통합 지도 이론

독서와 작문의 통합지도가 곧 논술을 위한 것인 만큼, 이 절에서는 독서 과정과 작문 과정의 유사성을 살핀 후, 독서와 작문의 통합 지도의 필요성과 문학 작품이 독서와 작문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3.1.1 독서의 과정과 작문의 과정

독서와 작문은 글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작문은 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이며, 독서는 표현된 담화를 받아들여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행위는 전혀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문을 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머리 속에 완전하게 정리된 의미를 단순하게 출력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편의 글이 문자의 형태로 출력되기 위해서 필자는 그 전에 읽었던 수많은 스키마들을 작동시키는 한편,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서 행위도 인쇄된 문자를 시각적으로 지각하기만 하면 저절로 의미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를 해독하는 단계 이후에도 독자가 온전한 의미를 구성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기까지에는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즉, 독서와 작문은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면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의미를 재구성하는 복합적인 사고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독서와 작문은 ‘필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와 ‘독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필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독서

과정과 작문 과정이 정확하게 일대일 대응을 맺지는 못하지만 그 둘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티어니(Tierney)는 독서 과정과 작문 과정의 공통점을 상세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플라워와 헤이즈(Flower & Hayes)의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문의 인지적 과정 요인(작문 과제 환경, 작가의 장기 기억, 작문 과정 자체)을 검토하였다. 이 검토를 통해서 독자가 과제 환경 속에 있을 때, 독해를 하면서 장기기억을 사용할 때, 그리고 계획하기·작성하기(혹은 이해하기)·재고하기의 과정을 거칠 때 작문과 독서의 공통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작문의 인지적 과정 요인이 독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츄(Chew)(1984)는 독서와 작문의 과정을 사전(事前) 읽기(사전(事前) 쓰기), 계획하기, 읽기(쓰기), 조정하기로 나누어 그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전 쓰기 활동에서는 브레인스토밍하기, 정보 수집하기, 깊이 생각하기, 토의하기 등의 학습을 한다. 이들 활동은 사전 읽기 활동인 토의하기, 머리말이나 제목 등의 단서로부터 정보 수집하기, 사전 지식 활성화하기 등과 대응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하기 활동에서 필자는 글의 틀을 형성한다. 글을 쓰는 목적, 청중을 고려하여 자료를 조직하고 언어를 선택하며 글의 표현 방식에도 관심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독자는 글의 목적, 필자의 의도, 언어 표현 방식,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읽고 쓰는 활동과 다시 읽고 다시 쓰는 조정하기 활동에서도 유사한 대응이 계속된다. 독자는 필자가 전달하려는 의미 내용인 글과 자신의 사전 지식을 통합시키면서 이해하고, 필자는 독자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단서와 전략 등을 사용하면서 표현을 하게 된다. 조정하기 활동이 어느 한 활동의 지점에 묶여 있지 않고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할 때 마다 작용하게 되는 것도 독서와 작문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다. 11)

11) 박영목 외 7인 공저, 『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 한국독서학회, 박이정, 2003, pp.209~2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와 작문은 유사한 과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교육은 작문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반대로 작문 교육은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학습자에게 독서/작문 교육을 서로 관련시켜 교육하는 것은 총체적인 독서/작문 능력의 신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의미를 새롭게 정교화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등 독서와 작문은 서로가 서로에게 교육적 상승효과를 끼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1.2 독서와 작문의 통합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하는 언어활동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언어의 각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독서 활동과 작문 활동은 모두 음성 언어가 아닌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독서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활동인 데 반해, 작문은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문자 언어 곧 글을 매개로 한 타인과 자신의 심리적 공유라는 점에서 양측(타인과 자신)은 서로 합치점을 일구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현재 · 이재승(1994)이 “언어 기능(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은 실제적 사용을 통해 증진되는 등 여러 모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관련되어,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총체 언어로 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¹²⁾고 주장한 맥락도 이와 같다.

권혁준은 숙련된 필자의 특성을 밝혀내는 방법을 통해 독서와 작문을 통합하여 지도했을 때의 효과를 탐색하는 등 독서와 작문의 통합 가능성에

12) 신현재, 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1994, p.17.

대해 진술하였다.¹³⁾ 그리고 국어과 영역의 읽기 자료 중 문학교재가 독서와 작문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하면서, 독서와 작문의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독서와 작문은 서로가 서로를 조명하는 관계에 있다. 즉, 숙련된 필자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은 많은 부분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신장될 수 있고, 또 작문 활동은 미숙한 독자를 사려 깊은 독자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읽는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언어 용법이나 글의 구조 등과 같은 언어 관습은 학생들이 직접 작문에 참여할 때 중요성이 인지되며, 언어의 잠재적 가능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글(text)을 창조할 때 드러난다. 반면에 작문은 다른 필자의 여러 가지 글을 읽고 그 글의 관습을 반영함으로써 자신의 글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독서 과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독해는 자신이 읽은 글들을 이용하여 통일성 있는 새로운 글을 생산함으로써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독서와 작문을 포함한 언어 기능은 통합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언어의 전체 영역을 유기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특히 문학 작품이 독서와 작문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은 실제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에코프(Eckhoff)는 문학 작품을 읽은 아이들이 문장이 단순화된 전통적인 읽기 교과서를 읽은 아이들보다 종속절, 부정사구, 분사구가 있는, 더욱 정교한 문장으로 글을 썼으며, 복합 동사도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문장이 단순화된 전통적인 읽기 교과서를 읽은 아이들은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문장을 모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문학 중심의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능 중심의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보다 시, 소설, 신문 기사, 정보적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한다.¹⁴⁾

13)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p.296.

14) 한철우 외 2인 공저, 「독서지도와 문학읽기」, 『문학중심 독서지도』, 대한교과서, 2001, p.4.

이처럼 문학 작품은 언어사용의 훌륭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문학 작품 읽기는 학생들의 작문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문학 교재는 의사소통 상황이 효과적으로 구현된 담화의 한 양식이다. 문학 작품은 언어를 가장 예술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구체화한 담화 형태라는 점에서 어떤 글보다도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좋은 모델이며, 훌륭한 자료가 된다. 언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실제의 상황에서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문학 작품은 실제의 언어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즉, 문학 교재는 심미적인 문학성을 갖추고 있는 예술 작품이기도 하지만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때, 문학 교재를 독서 활동의 자료로만 이용하지 않고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독서 능력과 작문 능력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문제중심 · 과정중심 학습이론

3.2.1 문제중심 학습이론

학습자가 고전소설을 접하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에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작품 속에 비어있는 의미의 빈 공간들을 새롭게 채워나가는 창조적인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지식 전달의 측면이 강조된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전소설 텍스트와 의사소통을 하는 학습자 중심의 과정지향적인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인 작품의 의미 구성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문제중심학습의 모형에 주목하였으며 문제중심학습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성은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활용한 실제 수업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 문제중심학습의 개념

구성주의 접근방식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형성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습관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수 · 학습 모형 중에 하나가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PBL)¹⁵⁾이다. 문제중심학습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 학습 모형이며, 문제중심학습의 특징들은 학습 목표와 방

15) 문제중심학습의 기원은 캐나다 McMaster 의과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이 대학의 Barrows 교수는 Dewey의 신념을 의학 교육에 적용해야하는 필연성을 인식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전문의사로 활동하는 동안에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지영, 「문제중심학습의 뇌과학적 고찰」,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8p. 참조),

향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구성주의의 관점을 수용한다면 학습의 개념을 ‘의미 있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여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습자와 관련이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부여하며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중심학습은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문 쓰기 활동의 구현 과정에서 학습자가 문제를 보다 능동적이고 입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학습방법이다.¹⁶⁾ 다시 말하면 문제중심학습은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정의 내린 후 학습주제를 설정하여 협동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자율학습, 전체 토의 학습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학습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직면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학습자 스스로 다시 조정하고, 최대한 교사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다양한 다른 방안을 선택하고 논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문제중심학습의 진행 단계 및 절차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적용할 수 있다.

16) 이지영, 「문제중심학습의 뇌과학적 고찰」,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1.

나. 문제중심학습의 특징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과는 달리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지향하는 문제중심 학습의 주요 특성¹⁷⁾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에게 친밀한 실제적 현실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적 문제 중심 접근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형태는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로서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교육환경을 실제 환경과 근접하도록 하여 교육과 현실을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중심학습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해결과정 자체에도 강조점을 둔다.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관련분야의 문제해결 및 비판적 사고력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이다.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학습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교사로부터 독립하여 학습 문제를 스스로 규명하고 학습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해결안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고차적 인지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문제중심학습은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협동학습은 인지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으므로, 문제중심학습이 협동학습을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중심학습이 단순히 인지적 학습에만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정의적 특성의 함양도 의도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17) 장대호, 「WBI PBL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교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14.

다. 문제중심학습의 절차

문제중심학습의 절차는 어떤 하나의 모형을 갖대로 하여 문제중심학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중심학습이 강조하는 학습환경, 곧 학습자 중심적, 주도적인가, 실제 상황에 기반한 문제중심인가, 그러한 학습환경의 결과로서 지식의 습득 이외에도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협동학습 능력 등을 익힐 수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표3-1>은 바로우(Barrows)와 미어즈(Myers)의 문제중심학습 전과정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다.¹⁸⁾

<표 3-1> PBL 방식의 전개과정 (Barrows & Myers, 1994)

수업 전개			
1. 수업 소개 2. 수업 분위기 조성 (교사의 역할 소개)			
문제 제시			
1. 문제 제시 2. 문제에 대한 주인 의식을 느끼도록 한다. (학생들이 문제를 내재화하도록) 3. 마지막에 제출할 과제물에 대한 소개를 한다. 4. 그룹 내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킨다.			
생각(가정들)	사실	학습과제	실천계획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기록: 원인과 결과, 가능한 해결안 등	개인 혹은 그룹학습을 통해 제시된 가정을 뒷받침할지 식과 정보를 종합한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이 더 알거나 이해해야 할 사항을 기록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실천계획
5. 주어진 문제의 해결안에 대하여 깊이 사고함: 칠판에 적은 다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생각(가정들)	사실	학습과제	실천계획
확대/집중시킨다.	종합/재종합한다.	규명/정당화한다.	계획을 공식화한다.

18)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김은호, 「문제중심학습이 언어영역 학업성취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p.13~14.재인용.

6. 가능할 법한 해결안에 대한 생각을 정비한다.			
7. 학습과제를 규명하고 분담한다			
8. 학습 자료를 선정, 선택한다.			
9. 다음 번 토론 시간을 결정한다.			
문제 후속단계			
1. 활용된 학습 자료를 종합하고, 그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다.			
2.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접근을 시도한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생각(가정들)	사실	학습과제	실천계획
수정한다.	새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재종합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새로운 과제 규명과 분담을 한다.	앞서 세웠던 실천안에 대한 재설계
결과물 제시 및 발표			
문제 결론과 해결 이후			
1. 배운 지식의 추상화(일반화)와 정리 작업(정의, 도표, 목록, 개념, 일반화, 원칙들을 만들어 본다.)			
2. 자아평가(그룹원들로부터의 견해를 들은 후에)			
·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이루어졌는지			
· 적합한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 내었는지			
·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함으로써 그룹원들에게 협조적이었는지			
· 문제해결을 통해 새로운 지식습득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심화학습 되었는지			

3.2.2 과정중심 쓰기지도 이론

앞서 언급한 문제중심학습의 활용이 학습자가 고전소설의 수용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미 구성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문제인식의 전략이었다면 여기서 논의할 과정중심 쓰기지도 이론은 학습자가 도출한 의미와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하기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쓰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논술수업을 지향하기 위한 활동 과정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학습자가 발견된 문제를 해결해 나

아가는 과정에서 구성된 정신적인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하게 하여 비판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가. 과정중심 쓰기의 개념 및 특징

과정중심 쓰기는 일반적으로 결과중심 쓰기의 오류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쓰기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과정중심의 쓰기 과정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연구자와 활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정중심의 쓰기는 상대주의적 지식관을 가지고 의미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지양한다. 더불어 쓰기 능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쓰기의 평가 과정에서도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중심의 쓰기 교육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¹⁹⁾을 가지고 있다.

첫째, 쓰기를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로 본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지식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형,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쓰기를 일종의 탐구 과정으로 파악한다.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문제해결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의 과정중심 접근에서는 글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 곧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

셋째, 쓰기 행위를 일종의 자기 조정 과정으로 본다. 일련의 쓰기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강조한다. 이 점은 앞에서 제시한 쓰기를 의미 구성 행위, 탐구 행위로 파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탐구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결과 자체보다는 일련의 쓰기 과정을 강조한다.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산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19)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2002, pp.16~17.참조.

다섯째, 쓰기 과정의 회귀성, 상호 작용성, 병렬성을 강조한다.
즉, 과정중심 접근에서는 쓰기를 직선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회귀, 반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여섯째, 방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특히 교사의 역동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단순히 글쓰기 과정을 따라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이 문제 해결 행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한다.
과제만 제시해 주고 결과를 점검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과는 구별이 된다.

일곱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강조하고 역동적인 문제 해결 행위를 강조한다. 일련의 쓰기 과정을 단순히 따라간다고 해서 과정중심 접근을 취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야 하고, 한편으로 문제 해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여덟째, 과정중심 접근은 쓰기 교육의 방법과 관련된 하나의 접근 방식이자 관점을 뜻한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과정중심 접근은 단순히 하나의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아홉째, 과정중심 접근은 쓰기 수업을 위한 교수 방식을 뜻한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과정중심의 쓰기라는 말은 학습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과정중심 접근은 기본적으로 교사 편에서 설정된 개념으로 교수 방법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과정 중심 글쓰기의 접근 방법의 특징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교수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쓰기의 과정을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는 비판적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문법과 같은 수사적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할지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나. 과정중심 쓰기의 전개 과정

일반적으로 논술문은 문제 해결 과정을 담은 글이라는 점에서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 따른 과정중심의 작문 지도를 해야 효과적²⁰⁾이며 그 과정은 크게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쓰기 후 단계, 조정하기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한 하위 과정은 논술의 문제 해결적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평가하기, 고쳐 쓰기로 구분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2〉 과정중심 쓰기의 과정 ²¹⁾

쓰기 전 단계	준비하기	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쓰기 단계	표현하기	
쓰기 후 단계	평가하기	
	고쳐 쓰기	

쓰기 전 단계에서는 수업을 위한 준비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가 이루어진다.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나누어주고 시간만 알려주는 식의 형식적인 활동은 피해야 한다. 최대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전략이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²²⁾, 마인드맵²³⁾ 등을 통해 글을 쓰기 전에 문제를 인

20) 정영희, 「언어기능 교육의 방법과 실제」, 남청자·김경신 공저, 『국어교육과 교육연구의 방법과 실제』, 박이정, 2004, p.159.

21) 이진주, 「과정중심 쓰기전략을 활용한 소설창작 수업방안연구-8학년 교과서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3, p.31.참조

22)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에서 활용되던 것으로, 집단적 사고의 전형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집단적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현재, 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 자료사, 1994, p.188.) ①글을 쓰려고 하는 글감을 하나 정한다. ②글감에 대한 많은 소재의 생산을 목표로 한다. ③생산된 아이디어를 적는 사람을 정한다. ④학생들은 그 글감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발표한

식하고 그에 대한 글감과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된다. 또한 확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체 쓰기를 일목요연하게 쓰는 데 도움을 주는 개요짜기가 작성되어야 한다.

쓰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써야 될 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성된 개요를 바탕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쓴 빨리 쓰기(speed writing), 철자나 맞춤법, 구두법 등에 집중하지 않고 되도록 쓰기 내용과 관련되어 신속하게 초고쓰기를 쓸 수도 있다. 이 과정 중에는 글을 쓰는 과정 중에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교수자들 상호간 쓰기 결과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활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

쓰기 후 단계에서 가능한 활동들은 평가하기와 고쳐 쓰기이다. 평가는 수업의 목적에 따라 학습자 자신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학습자 간의 상

다. ⑤여러 학생이 골고루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남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는다. ⑦아이디어를 항목별로 분류해 보고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다. ⑧글감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소집단 협동학습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작문활동이 학습자의 개별적인 고립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절차는 융통성 있게 변형될 수 있다.

23) 마인드맵을 창안한 토니 부잔은 전체적인 개요를 한눈에 파악하고 양쪽 뇌를 모두 사용해서 노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개발했다고 한다. 그가 학습과 프로젝트 구성 과정에서 특히 마인드맵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마인드맵은 문제나 정보의 중심어나 중심 이미지는 용지의 중앙에 온다. 생각은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게 한다. 핵심어로 생각을 표현한다. 하나의 핵심어에 하나의 선을 부여한다. 핵심어들은 선으로 중앙의 중심어와 연결된다. 색상을 이용해서 생각을 강조한다. 이미지와 상징적 기호를 사용해서 생각을 강조하고 두뇌가 다른 연결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한다. 마인드맵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ony Buzan, 라명화 역, 『마인드맵 북』, 평범사, 1994, p6. pp.55~61) ①주제 또는 제재를 중심 이미지로 시작한다. ②하위 범주의 아이디어들은 자유롭게 배치해서 아이디어 그물을 형성하도록 한다. 참조 사항이나 서로 다른 분야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 색상이나 기호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③마인드맵을 구조의 틀로 해서 글을 쓴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어렵거나 특별한 용어, 문법적 구조를 요하는 분야는 생략하고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써야 한다. ④글을 쓰는 도중에 장애물에 부딪치면 또 하나의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장애물을 극복한다.

호평가도 가능하며, 교수자가 계획된 평가표를 통해 학습자를 평가할 수도 있다. 평가하기 과정이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단순한 가치 판단이 아닌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글쓰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고쳐 쓰기는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결과물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부분적으로 다듬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 글을 다시 쓰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조정하기는 글을 쓰는 과정이 예컨대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의 순차적인 단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쓰기 과정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순환적 과정을 말한다. 조정하기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학습자가 교수자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글쓰기 과정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

과정중심 쓰기는 이상에서 언급한 개략적인 과정중심 쓰기의 세부 활동의 단계와 요소들을 살펴보면 주어진 문제에 대한 구상과 글쓰기, 평가하기 등의 과정이 조정하기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순환되는 구조화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4.1 「홍길동전」의 교육적 가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 있지만, 소설 중에서도 고전 소설 「홍길동전」을 논술지도의 텍스트로 활용하려고 한다.

고전은 그 어원이 가리키듯이 우리 옛 글 가운데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조상이 남긴 옛 글 가운데 후손으로서 알아야 되겠고, 또한 영원히 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 고전이다.²⁴⁾

옛 작품이라 하여 모두 고전문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정한 고전문학에는 이미 있어온 바의 전통성과 후세 문학의 규범이 될 만한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 각 세대의 모습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문학작품으로 오랜 세월을 겪어 내려오면서도 그 가치는 변질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영원히 후세에도 전하여질 만한 것이 바로 고전문학이다. ²⁵⁾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단지 옛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인 것만은 아니다. 옛날을 앎으로써 현재를 알 수 있고 또한 미래를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목적도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을 읽음으로써 우리들은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해 왔

24) 김형규, 「고전 교육의 문제점」, 『새국어교육』, 제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965, p.1.

25) 김성배, 『신국어교육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7, p.162.

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현재 우리 생활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전문학 중에서도 언제까지나 읽는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교훈을 주는 것으로 고전소설을 꼽을 수 있다. 홍길동전, 심청전, 토끼전, 흥부전, 춘향전 등은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을 통해 내용이 덧붙여지고 개작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오늘의 작품 모습을 이루었듯이, 현대에서도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으며 새로운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고전소설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작품에 제시된 가치관을 내면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고전소설에 선인들의 정신세계와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피고, 작품의 내면에 흐르는 가치관을 발견하여 현재의 삶에 수용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전소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고전소설의 이야기 구성과 문체, 표현 등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나아가서는 마음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춘향전, 심청전 등의 고전소설이 당시의 사회를 배경으로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구조와 표현들은 현대의 읽는이에게 재미를 느끼게 한다. 또 고전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인간적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고전소설은 현대와 시대는 달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점에서는 현대 소설과 같다. 고전소설에는 선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았으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전소설에는 당대의 부정부패한 정치 현실 상황이나, 인물간의 숙명적 대립, 또는 한 개인의 운명적 갈등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논술문을 지도할 때 논제를 제시하거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사고를 확장하기에 다른 장르의 작품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인생의 축도로서 삶의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언어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전소설은 그 생성과 변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대를 살아간 조상들의 삶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전소설은 지나간 시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정신적 전통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전소설을 통해 동일한 민족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학습자들을 문화적으로 동화시킴으로써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현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이러한 고전소설의 교육적 의의와 문화적 의의를 고려하여 고전소설을 논술 지도에 활용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 문학과 문화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때 학습자들은 우리 문학의 고유성을 깨닫고 그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선인들의 가치관, 삶의 지혜, 미의식 등을 익혀서 그것을 우리의 언어생활에 깃들이도록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전소설 작품 중에서도 「홍길동전」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논술 지도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해 보려고 한다.

이 작품은 작자가 선조조(宣祖朝) 말에 서얼(庶孽)들이 서출 자손의 출세길을 막는 것을 철폐하여 달라고 연명(連名)으로 상소하였다가 실패하고, 쿠데타를 음모하다가 사전(事前)에 발각되어 처형된 서양갑, 심우영 등을 모델로 하여 그들의 꿈을 표현한 것이다. 작가가 의도한 적서차대는 주인공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의 유언으로 철폐되었고, 서출 자손의 출세길을

26) 장마리아, 「중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p.68~70.

막는 것은 서자 출신인 홍길동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병조판서 벼슬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부각하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실현할 수 없으므로, 작자 허균은 주인공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술을 부여하였다. 그래서 주인공 홍길동은 도술을 부려 지방관리들의 옹지 못한 재물을 탈취하고, 도적을 토벌하고 있다. 작자가 주인공의 도술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 탓인지 처음에 의도했던 주제가 잘 형상화되지 못한 흠이 있으나, 봉건적인 조선사회에서 작자가 처음으로 사회문제를 대담하게 들고 나왔다는 점,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서열들의 꿈을 표현했다는 점, 우리나라 최초의 흥미 있는 도술문학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성을 지니고 있는 소설이다.²⁷⁾

「홍길동전」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당대의 봉건적 지배 윤리를 비판하는데 있으며 「홍길동전」교육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홍길동전」에 드러난 현실 비판의 모습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홍길동전」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는 「홍길동전」의 해석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고전소설에 대한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텍스트 즉,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형태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살아있는 텍스트로서 「홍길동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홍길동전」이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 즉, 오늘날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바로 「홍길동전」의 교육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홍길동전」은 현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 독서를 위한 읽기 텍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다

27) 김기동, 『한국고전문학』, 명문당, 1994, pp.210~211.

양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홍길동전」의 내용 중에서 볼 수 있는 ‘도적행위’같은 것은 대표적인 논제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홍길동전」은 당대 문학 향유층이 어떤 내용에 흥미를 갖고 공감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 오늘날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그 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홍길동전」을 논술지도를 위한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소설 텍스트의 사건을 하나의 문제 상황으로 보고, 그 문제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선택한 행위에 대하여 ‘이것은 정당한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 소설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며, 그 사건은 학습자들이 이미 경험했거나 혹은 장차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행위는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삶과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주체적 수용 결과를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설 텍스트 읽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체계에 의한 또 다른 표현 활동이므로 창조적인 논술문 쓰기 활동과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소설 텍스트 읽기 활동과 논술문 쓰기 활동은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 읽기 활동을 더욱 심층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소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된 비평 의식은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등 소설 텍스트 읽기는 심도 있는 논술문 쓰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장에서는 논술 지도 방법을 구안하기

로 하겠다. 지도 내용을 선정하는 원리와 방법, 논술문 쓰기의 절차와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2 논술 지도 모형

학습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학습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 모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체적인 수업을 계획하고 적절한 학습량 및 자료를 개발하는 주체는 교수자이다. 하지만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주는 과정이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상황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게 만들고 발전적인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앞서 검토한 문제중심 학습모형과 과정중심 학습모형을 근간으로 교수·학습의 모형을 구안해 표28)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1〉과정중심 글쓰기 모형과 문제해결 중심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한 수업 모형

과정 중심 · 문제 해결 학습 과정	문 제 발 견 하 기	문 제 해 결 하 기	문 제 해 결 하 기	-초기활동 -학습목표확인 -텍스트 분석 및 이해	-텍스트 내용에 접근	조 정 하 기
	문 제 해 결 하 기			-문제 상황직면 및 정의하기	-문제 상황제시 및 문제의 발견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문 제 해 결 하 기	문 제 해 결 하 기	문 제 해 결 하 기	-정보수집 및 공유하기	-자기주도 학습 -협동학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의 적용 및 문제 해결 계획에 대한 반추	
	문 제 해 결 하 기	문 제 해 결 하 기	문 제 해 결 하 기	가능한 해결안 생성하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요 작성하기	

28) 한기조, 「서사극의 논술교육 활용 및 지도방안 연구-이근삼의 <국물 있습니다>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39, 참조 (본 모형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행해졌을 때, 학습자들이 느낄 수 있는 학습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활동의 단계를 나누어서 학습자들이 좀더 차분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 결 하 기	쓰 기 후	표현하기	-논술문 쓰기
		평가하기	-자기평가 또는 상호평가
		고쳐 쓰기	-수정하기 -발표하기 -해결안에 따른 문제재정의 및 종합정리하기

구안한 모형의 중심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의 텍스트로 활용될 「홍길동전」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체 과정은 크게 문제발견과정과 문제해결과정의 큰 틀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쓰기 전 단계 전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하기 단계로 설정하였다. 초기 활동부터, 텍스트 내용에 접근하고,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 전체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쓰기, 쓰기 후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요를 작성하고 개요에 따라 논술문의 내용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과정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제 발견 및 해결 계획 모색하기 단계를 문제 상황 직면 및 정의하기, 정보수집 및 공유하기 단계로 나누었다. 문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정의하는 활동을 수행 한 후에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후에 모둠 구성원들의 협동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반성하고, 다시 해결 계획을 세우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전의 문제 발견 및 해결 계획 모색하기 단계처럼, 여러 가지 활동이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행해졌을 때,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학습의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고, 좀더 차분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학습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자기평가 또는 상호평가를 거쳐서 수정하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문제를 재정의하는 활동을 수행한 후 종합적인 정리를 한다. 문제를 재정의하는 활동은 문제중심학습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체 과정을 밟은 후에 행하는 마지막 단계로, 학습과정을 거친 후에 새로운 문제를 제공하는 단계이고, 새롭게 형성하게 된 학생의 사고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수업 설계를 위한 위의 모형을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차시별 교수학습의 전개 과정을 상정하여 보았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학습자의 사고 과정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4차시 교수·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러한 4차시 학습단계에 필요한 주요 내용 및 활동 사항들은 별도의 수업 차시와 목표로 상정되어 지도가 가능한 지점들이다. 각 주요내용 및 활동과 관련되어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지도가 가능한 학습 내용들은 이후 수업 지도 방안을 계획할 때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표 4-2〉 차시별 교수·학습의 단계 및 주요 내용

차시	학습단계	주요학습 내용 및 활동
1/4	쓰기 전 단계	① 초기 활동 ② 학습 목표 확인 ③ 텍스트 내용에 접근
2/4	쓰기 전 단계	① 문제상황 제시 및 문제의 접근 ②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③ 자기주도 학습 ④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의 적용 및 문제해결계획에 대한 반추
3/4	쓰기 단계	① 개요 작성하기 ② 논술문 쓰기
4/4	쓰기 후 단계	① 자기 평가 또는 상호 평가하기 ② 수정하기 ③ 문제 제정의 및 종합정리



4.3 논술지도 모형의 적용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면서 사회현실에 대하여 주인공이 고민하고 느끼는 바를 전지적인 관점에서 직접 표출하고 있는 작품으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학습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학생들이 「홍길동전」의 줄거리는 익히 알고 있겠지만 조선시대의 사회현실과 관련지어 본다거나 홍길동의 고민과 울분을 느껴 본 적은 드물 것이다. 홍길동의 인간적 고뇌에 동참해 보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작품에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문학체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홍길동전」은 본 연구의 고전소설 대표작품으로 적절한 제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소설로 적서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회소설로 논술지도에서 ‘문제의식’을 이끌어내기에도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각 차시별 지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리 구안한 차시별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의 순서를 따라 서술되도록 하였다.

4.2.1 1차시 교수·학습 지도 계획안

① ‘초기 활동’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활동에서는 효과적인 수업전개를 위해 수업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으로 교수자의 개입이 높은 단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제중심학습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축소되지만 초기 활동 이전에 수업의 성격과 방향을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전체 학습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직화된 교육과정과 조별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 내 · 외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가 이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업을 전개하기에 앞서 교수자의 역할이 수업의 안내자와 조언자로서 축소되었으며 이후 전개될 학습과정에서 협동학습²⁹⁾을 통한 학습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초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고전소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홍길동전」을 접해본 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 학습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추후 이루어질 논술문 쓰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과 사전지식도 같이 점검하여 수업의 방향과 글쓰기 수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학습자에게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소설 및 논술문 쓰기와 관련된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업에 소요되는 설문지 작성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학생들이 작성하기 용이한 개략적인 질문 목록으로 구성하였다.

29) 문제중심학습은 협동학습의 환경을 중시한다. 협동학습이란 ‘학습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향하여 소집단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이다.’(Slavin) 여기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태도를 갖게 되고 집단 구성원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학습부진을 개선할 수 있다. 즉 협동학습이란 학습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학습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협동학습은 다른 유형의 학습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연구도 보고 되고 있다. (정문성, 김동일, 『열린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8, pp.23~27 참조).

〈표4-3〉 학습자의 사전지식 진단 설문지

학년/ 반	이름
<p>1. 지금까지 접한 고전소설 작품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써 보세요. ()</p> <p>2. 고전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간단히 써 보세요. ()</p> <p>3. 「홍길동전」을 읽어 본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p> <p>4.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써 보세요. ()</p> <p>5. 「홍길동전」의 내용 중, 논술 주제를 끌어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만 써 보세요. ()</p> <p>6. 논술문을 써 본 경험이 있나요? 예 () 아니오 ()</p> <p>7. 논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써 보세요. ()</p>	

초기 활동을 하면서 학습 환경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에서 모둠활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모둠 구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모둠을 구성하는 인원은 다섯 명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의 비중이 높은 수업일수록 학습자 상호간 의사소통의 양과 질은 학습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는 학습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소란스러울 수 있다. 반면 너무 작으면 다양한 의견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둠의 구성원은 이끄는, 기록이, 깔꿈이, 칭찬이, 지킴이로 개인적 책임으로 적절한 역할을 분담 받는다. 이끄는 모둠의 리더로 토의를 진행하고 모둠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기록이는 전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깔꿈이는 정리 정돈, 자료 배부 등의 역할을 하고, 칭찬이는 모둠 구성원이 의견을 제안하거나 발표하면, 칭찬, 격려하게 하여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지킴이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인하여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30)

모둠의 구성도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학업성취도가 각기 다른 사람들로 모둠이 구성되게 한다. 또한 교수자는 모둠 구성원의 역할이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모둠 전체를 이끌고 모둠원들이 토의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리더를 정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토의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자, 모둠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과 봉사를 하는 도우미 등이 정해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30) 김효진, 「중학교 3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방법 연구;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의 혼합 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p.47.

② ‘학습목표 확인’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홍길동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관련된 역사 ·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학습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방법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이것은 차시별로 학습자에게 직접 제시되는 학습목표 뿐만 아니라 연계된 전체 수업을 포괄하는 학습 목표의 구안까지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문제 중심학습의 활용 취지를 상기한다면 이와 같은 학습목표는 협동학습과 토론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습자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도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괄적인 학습목표의 설정과 전체 수업 계획에 부합하는 수위의 학습목표 제시는 교수자가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³¹⁾ 연계된 전체 수업의 학습목표는 이후 활용될 수 있는 과정중심 글쓰기를 통한 논술문 쓰기 활동을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목록을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목표의 사례]

- 「홍길동전」의 작가의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다.
-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작가가 사회와 대상을 보는 개성적인 시각을 발견하고, 작가가 비판하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홍길동전」의 등장인물의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작품 속 구체적인 장면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현대적 삶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 시

31) 한기조, 「서사극의 논술교육 활용 및 지도방안 연구-이근삼의 <국물 있습니다>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44.

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③ ‘텍스트 내용에 접근’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홍길동전」을 지도하기에 앞서 고전소설이라는 장르의 개괄 및 특성에 대한 선행학습이나 관련정보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전체 학습 목표를 지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텍스트 내용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습자의 작품 감상과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겠지만 작품을 감상하기 전 간략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감상 방향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텍스트 내용의 접근 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에게 작품 전문을 접하게 할 것인지, 작품의 부분을 임의로 발췌해서 감상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업의 목적과는 별개로 학습자는 작품의 전문을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교수자는 계획된 수업의 시간과 제약들을 고려하여 미리 학습자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사전에 미리 텍스트를 읽어오게 하였다면, 수업 시간에는 학습자의 작품 감상 느낌부터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몇몇 학습자들을 통해 발표하게 만들고 교수자가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주요 내용 및 활동을 바탕으로 1차시 교수·학습 계획안을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 쓰기 전 단계의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명	고전소설과 「홍길동전」	차시	1/4
학습 목표	1. 전체 학습 과정과 수업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2. 「홍길동전」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3. 모듈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습 자료	「홍길동전」 텍스트, 학습자의 사전지식 진단 설문지		

단계	학습 형태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전체 학습	초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및 주의 환기 ▶학습 분위기 조성 ▶전체 수업의 계획과 학습목표 확인 · 고전소설을 활용한 논술문 쓰기 ▶학습자의 사전지식 진단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 ▶모듈구성을 지도 	10분	· 자유로운 발표 분위기를 조성
전개	전체 학습 모듈 활동	텍스트 내용에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 ▶모듈별로 고전소설의 전형적 유형에 맞춰, 「홍길동전」의 내용 분석해 보게 하기 ▶교수자의 설명과 정리 	35분	고전소설 장르의 개괄 및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보다 작품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도록 유도
정리	전체 학습	텍스트 내용에 접근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시 예고 ▶협동학습을 위한 과제 제시 · 텍스트의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 	5분	· 소외된 학습자가 없도록

		조정하기	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써 보고 그와 같이 생각하게 만든 이유가 된 장면을 발췌하는 과제 할당	록 과제 할당에 주의 · 마지막 과제는 다음 차시의 수업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필요
--	--	------	---	--

4.4.2 2차시 교수 · 학습 지도 계획안

① ‘문제 상황 제시 및 문제의 발견’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문제 상황 제시 및 문제의 발견 과정에서는 교수자에 의해 미리 개발된 문제나 아이디어가 학습자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중심 학습의 핵심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정의하는 일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홍길동전」의 장면 중 문제 상황으로 제의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논의하여 논술문을 쓸 수 있는 문제 자체를 직접 만들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선행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학습자는 모둠 활동을 통해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지할 수 있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찾아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명명한 문제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 작품의 구체적 장면을 발췌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학습자는 「홍길동전」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의 비판적 사회변혁의 의지를 찾아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문제로

명명하고, 그러한 비판적 사회변혁의 의지가 작품의 어떠한 요소에서 발견되고 있는지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로 명명한 문제는 논술문의 실제 논제로 쓰일 수 있으며, 학습자가 문제에 대한 근거로 발췌한 작품의 장면들은 논술문의 제시문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텍스트의 장면들과 잠재된 문제 상황이 학습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과 삶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고전소설의 암시적이거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학습자가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반화된 문제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조언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홍길동전」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들은 작품의 배경인 조선시대의 특수한 상황이며, 학습자들은 그러한 사회에 편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의 문제 상황은 자신들과 무관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발생할 여지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는 수업에서 다루어질 문제 상황을 자신의 문제 상황으로 내재화할 수 있어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고 더욱 능동적인 학습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둠활동이 중심이 된다. 때문에 설정된 문제에 대해 모둠 구성원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문제 발견과 관련하여 모둠활동이 산만하고 체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작품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논술문 쓰기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모둠의 활동 결과물과 함께 마지막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소개해야 한다. 또한 모둠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은 모둠별, 개별 평가

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해주어 모둠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소외되는 학습자가 최소화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②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의 지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과정에서는 문제가 텍스트를 통해 결정되면 모둠 구성원들은 문제와 관련된 맥락과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해결해야 될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모둠 구성원들은 어떠한 학습내용을 분담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설정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하며,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발전적인 순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습자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치면 모둠활동을 통해 계획을 다시 조정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모둠 활동의 의사결정과 논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추론은 Barrows & Myers의 문제중심학습 방식의 전개과정에서 보았듯이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표4-5〉 학습 내용 추론의 단계³²⁾

해결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	⇒	더 알아야 할 정보들	⇒	실천 계획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가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생각, 배경지식,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 생각, 배경지식,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실

32) 강인애, 「문제중심 학습:또 하나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모형」,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논총 제12집, 1998, p.161.참조

정은 무엇이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며, 필요한 기준, 관점, 정보, 수단 등은 무엇인가?		정보들 중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	정보들 중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알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		천 계획을 세우고 분담
---	--	--------------------------	---	--	--------------

예컨대 모둠에서 텍스트를 통하여 설정한 목표가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작품 속 구체적인 장면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현대적 삶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다.’라면 모둠의 구성원들은 설정된 목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분석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우선 해결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단계에선 설정한 문제에 분석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우선 해결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단계에선 설정한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 「홍길동전」의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활용할 것인지, 필요한 기준, 관점, 정보, 수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다음 단계인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모둠 구성원들이 고전소설 그리고 「홍길동전」 작품에 이르기까지 선행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진단한다. 그래야 더 알아야 할 정보들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실천계획이 구성원에게 분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설정한 문제에서 「홍길동전」의 주인공 길동의 삶의 가치’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면을 활용할지 모둠의 구성원들이 고민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 길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볼 것인지, 공감하면서 볼 것인지, 호의적으로 볼 것인지는 모둠 활동을 통해 의견이 모여

야 한다. 그리고 나면 학습자들은 고전소설에 대한 정보의 결핍 정도를 인지할 것이며 자신들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듈의 과제가 설정될 것이고 그것은 개별학습자에게 분담되어 이후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될 것이며 또 다른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실천 결과물들이 공유되어 보완되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의 과제 수행 계획서를 학습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과제수행계획서는 모듈별 논의의 범주와 단계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며 기록장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일수록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표4-6〉 과제수행계획서 33)

모듈이름	일시			년	월	일
구성원명단						
설정한 문제명	「홍길동전」의 주인공 길동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작품 속 구체적인 장면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우리 삶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다.					
활동 목표			수정 및 보완된 활동 목표			
1. 길동의 삶의 가치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2. 주인공 길동의 삶의 가치가 반영된 장면을 이해하고 발췌할 수 있다. 3. 「홍길동전」에 나타난 주인공 길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4. 시대적 특징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1. 고전소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길동의 삶의 가치에 대비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해결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목록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	더 알아야 할 정보들		실천계획		
· 주인공 길동의 대사	· 길동이 비범한 능력	· 작품이 쓰여졌던		· 주인공		

33) 한기조, 「서사극의 논술교육 활용 및 지도방안 연구-이근삼의 <국물 있습니다>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52, 참조.

<p>만 뽑아서 정리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인물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본다. · 관련 정보가 있는지 인터넷과 서적을 찾아 본다. · 길동의 행동을 원인과 결과의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p>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소설에 제시되는 인물은 당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일 수 있다는 사실 	<p>시대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소설에 대한 정보 	<p>길동의 특성 조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소설에 대해 조사하기 · 작자 허균의 사상적 경향과 그의 삶에 대해 알아보기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활동을 위한 인터넷 카페 만들기 · 모듈활동을 위한 장소 및 시간 결정하기 			

※ 과제 수행 계획서에 기술된 내용들은 사례로 작성해 본 것이다.

위의 표에서 해결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목록을 구상할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가능한 해결방안 등 가설적인 논의들이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의 틀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주장들을 뒷받침할 지식과 근거를 종합할 수 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정보들이 취합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더 알아야 할 정보들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모듈별로 문제 상황에 대한 차별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수집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학습할 내용 및 실천계획이 정해지면 모듈이 모임 시간 및 장소, 학습자 상호간 자료를 어떻게 공유하고 취합할 것인지 등의 방법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듈별로 과제해결을 위한 논의와 조정활동은 실천계획이 구체화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별도의 장소에서 모듈별로 직접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카페활동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도와 과정

들은 모듈별로 진행된 의견들을 요약하고 재검토하여 수정하며 나아가 조직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명확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모듈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수업 외 이루어진 활동의 과정과 결과물들은 교수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듈별로 정리하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③ ‘자기주도학습’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학습은 모듈별로 실천계획을 통해 분담된 학습내용을 학습자들이 점검하고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는 개별적인 학습단계이다. 모듈에게 주어진 문제나 문제 상황이 무엇인가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은 현실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학습자가 별도의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의 장시간에 걸쳐 수업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정규 수업 외 수업 시간의 확보가 용이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문헌이나 사진, 여론,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론,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등을 조사하고 확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 요약된 결과물은 학습자의 평가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학습자가 분석하고 독해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들을 논술문의 제시문이나 학습지의 형태 등으로 교수자가 직접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④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의 적용 및 문제해결 계획에 대한 반추’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앞서 학습자가 경험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 추론 단계’의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별 구성원들이 확보한 생각이나

관점, 자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상호 비판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처음 가정한 사실들이나 아이디어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새로 얻은 지식이 있다면 활용하여 재종합이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다면 새로운 학습과제를 다시 정하고 분담하며 앞서 세웠던 실천안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내용 및 활동을 바탕으로 2차시 교수 · 학습 계획안을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4-7〉 쓰기 전 단계의 2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단원명	고전소설을 활용한 논술문제 만들기			차시	2/4
학습 목표	1. 「홍길동전」의 문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2. 「홍길동전」의 텍스트 내용을 논술문에 활용할 제시문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3. 협동학습을 통해 논술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학습 자료	「홍길동전」 텍스트, 과제수행 계획서				
단계	학습 형태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전체 활동	선수학습의 연계	▶인사 및 주의 환기 ▶전시 학습 및 과제 확인하기 · 「홍길동전」의 인물, 구조, 주제 등과 관련된 모둠별 과제 내용 발표 및 확인 ▶학습 목표 확인	5분	
전개	소집단 협동 학습	문제발견 및 해결계획 모색	▶문제 명명하기 · 모둠별로 「홍길동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 만들기(논술문 문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40분	· 모둠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과제수행계획서를 배포 · 효과적인 모둠

			하기 (과제수행계획서 활용) ·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알고 있는 정보들, 더 알아야 할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천계획 수립 · 모둠 구성원 각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역할 분담하기		활동을 위해 교수자는 모둠관찰과 조언이 필요
정리	전체 활동	조정하기	▶모둠활동의 진행사항 확인 및 정리 ▶차시 예고 ▶논술문쓰기를 위한 과제 제시 · 수업 외 자기주도학습과 모둠활동을 통해 「홍길동전」에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와 텍스트의 내용을 활용한 제시문 완성해 오기	5분	·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모둠 구성원의 협동학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4.2.3 3차시 교수 · 학습 지도 계획안

3차시 수업에 앞서 교수자는 모둠별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문제발견과 해결과정 모색의 논리적 틀을 고려하여 고전소설 텍스트의 이해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전체 지도과정의 취지가 학습자에게 고전소설의 이론을 주입시키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전소설의 문제 제시 방법을 자기주도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적인 글쓰기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의 타당한 부분만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수준의 조언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1차시, 2차시의 선행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내용과 형식 그리고 완성도의 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학습자들이 만들어 온 결과물 중에는 「홍길동전」의 사회

변혁의 의지나 사회 비판적인 주제의식의 맥락과 부합되는 요소가 일정부분 담겨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차시 이후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논술문 쓰기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2차시 과정까지 학습자들이 모둠활동을 통해 「홍길동전」에서 도출한 문제 목록과 그 근거로 발췌된 텍스트의 장면들을 교수자가 분석하고 점검하여 최종 논술문을 계획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술문의 문제와 제시문을 과제로 완성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과제물을 수정과 보완 없이 논술문제로 직접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대한 학습자의 결과물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필요는 있다.

직접 실험 연구할 수 없는 본고의 특성상 「홍길동전」의 특징과 논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임의로 다음과 같은 논술문제들을 구안하여 보았다.

<논술문제 사례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신분제도’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정리하고, ‘신분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가) 지금이야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문명시대이기 때문에 신분상 차별이 없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노예제도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140년 전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수천 년간 카스트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하며 폐지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분이 결혼이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노예제도나 신분제도는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존재했을까요? 이러한 신분제도는 왜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왕족이나 귀족, 평민, 노예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아니지만 기독교 경전인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예나 종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약 2000년께 족장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 오도록 하죠. 또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갑니다. 이후 야곱 가족은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한 후 400여 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나 로마시대에 노예제도는 더욱 일반화됐습니다.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노예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전쟁에서 붙잡혀 온 사람들이 노예가 됐는데 기원전 5~4세기에는 가정 당 2~3명 정도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시대에는 포로로 잡혀 온 노예 외에도 하층 평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노예들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자들 수입 중 대부분을 노예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로 변모하였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대부분 생산적인 일은 노예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또한 검투사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자신의 동료를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노예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등 노예제도는 중세로 들어서면서 농노제로 바뀌게 되나 노예나 농노들이 담당하는 일이나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예(또는 종)를 보다 용이하게 통제하면서 경제적 이득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중세 신분제도는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평민은 농노와 장인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중세 유럽 신분제도는 부르주아라 불리는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한편 15세기 이후 유럽 강대국들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사고파는 노예무역을 시작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노동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예제도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부인권사상의 발달과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노력으로 19세기 중반을 전후해 노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8조금법(八條禁法)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어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에는 왕족과 귀족, 평민 또는 천민으로 구분되는 신분제도인 골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그 골격을 유지해 오다 1894년 갑

오개혁 이후 급속히 해체됐습니다.

-두산 백과사전-

(나) 세월이 여류하여 길동의 나이 팔세라. 상하(上下) 다 아니 칭찬할 이 없고 대감도 사랑하시나, 길동은 가슴의 원한이 부친(父親)을 부친(父親)이라 못하고 형(兄)을 형(兄)이라 부르지 못하매 스스로 천생(賤生)됨을 자탄(自嘆)하더니, 칠월 망일에 명월을 대하여 정하에 배회하더니 추풍은 샅샅하고 기러기 우는 소리는 사람의 외로운 심사를 돕는지라. 홀로 탄식하여 왈,

"대장부 세상에 나매 공맹(孔孟)의 도학(道學)을 배워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대장인수를 요하(腰下)에 차고 대장단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를 지휘중에 넣어두고, 남으로 초를 치고, 북으로 중원을 정하며, 서로 축을 쳐 사업을 이룬 후에 얼굴을 기린각에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유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이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씨 없다.' 하였으니 나를 두고 이름인가. 세상 사람이 갈관박이라도 부형을 부형이라 하되 나는 홀로 그렇지 못하니 어떤 인생으로 그러하고." 울울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칼을 잡고 월하(月下)에 춤을 추며 장한 기운 이기지 못하더니, 이때 승상이 명월(明月)을 사랑하여 창을 열고 비졌더니, 길동의 거동을 보시고 놀래 가로되, "밤이 이미 깊었거늘 네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러하느냐?"

길동이 칼을 던지고 부복 대왈,

"소인은 대감의 정기를 타 당당한 남자로 낳사오니 이만 즐거운 일이 없사오되, 평생(平生) 설위하옵기는 아버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상하 노복(奴僕)이 다 천히 보고, 친척 고두도 손으로 가르쳐 아무의 천생이라 이르오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인하여 대성통곡(大聲痛哭)하니, 대감이 마음에 긍측(矜惻)이 여기시나 만일 그 마음을 위로하면 일로조차 방자할까 하여 꾸짖어 왈.

"채상의 천비 소생이 너 뿐 아니라. 자못 방자한 마음을 두지 말라. 일후(日後)에 다시 그런 말을 번거이 한 일이 있으면 눈앞에 용납치 못하리라."

하시니, 길동은 한갓 눈물 흘릴 뿐이라. 이윽히 엎드려있더니, 대감이 물러가라 하시거늘, 길동이 돌아와 어미를 붙들고 통곡 왈,

"모친(母親)은 소자와 전생연분으로 차생(此生)에 모자 되오니 구로지은(劬勞之恩)을 생각하오면 호친망극하오나, 남아(男兒)가 세상에 나서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위로 향화를 받들고, 부모의 양육지은(養育之恩)을 만분의 하나라도 갚을 것이거늘, 이 몸은 팔자 기박하여 천생이 되어 남의 천대를 받으니, 대장부 어찌 구구히 근본을 지키어 후회를 두리요. 이 몸이 당당히 조선국 병조판서 인

수를 띠고 상장군이 되지 못할진대, 차라리 몸을 산중에 붙여 세상(世上)영욕(榮辱)을 모르고자 하오니, 복망(伏望) 모친은 자식의 사정을 살피사 아주 버린 듯이 잊고 계시면 후일에 소자 돌아와 오조지정을 이를 날 있사오니 이만 짐작 하옵소서.”하고, 언파에 사기 도도하여 도리어 비회 없거늘. 그 모 이 거동을 보고 개유(開諭)하여 왈,
 ”재상가 천생이 너뿐 아니라.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되 어미의 간장을 이다 지 상케 하느냐?
 어미의 낫을 보아 아직 있으면 내두에 대감이 처결하시는 분부 없지 아니하리라.”

제시문 (가)는 ‘신분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신분제도가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시문 (나)의 내용은 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도 때문에 천대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흥판서에게 하소연 하지만 오히려 흥판서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장면이다.

질문의 주된 의도는 (가)에서 ‘신분제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분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찾고, (나)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신분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가)의 설명적 내용을, 분석적으로 독해하여 ‘신분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신분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했었는지를 이해하고 (나)를 통해 ‘신분제도’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질문에 대한 평가 및 답안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통해 신분제도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내용의 이해, 요약 · 정리능력을 확인하고, ‘신분제도’가 가지는 ‘사회질서 유지 · 발전’이라는 측면의

긍정적인 점과 ‘인간차별’이라는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점 등의 논점을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확인, 또한 각각에 대한 자신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논술문제 사례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질문] 홍길동의 ‘율도국’ 건국 행위의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삼군을 재촉하여 도성을 에워싸니, 율도왕의 장자 흥변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인하여 자결하니, 제신이 하릴없이 율도국 세수를 받들고 항복하는지라. 길동이 대군을 몰아 도성에 들어가 백성을 진무하고, 율도왕의 아들을 또한 왕례로 장사하고, 각 읍에 대사하고, 죄인을 다 방송하며,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휼하니, 일국이 그 덕을 치하 아니할 이 없더라.

날을 가리어 왕위에 직하고, 승상을 추존하여 태조왕이라 하고, 능호를 현덕능이라 하며, 모친을 왕대비로 봉하고, 백용으로 부원군을 봉하고, 백씨로 중전왕비로 봉하고, 정통 양인으로 정숙비를 봉하고, 삼호걸로 대사마 대장군을 봉하며 병마를 총독케 하고, 김인수로 청주절도사를 하시이고, 맹춘으로 부원수를 하시이고, 그 남은 제장은 차례로 상사하니 한 사람도 칭원할 이 없더라.

신왕이 등극 후에 시화연풍하고, 국태민안하여 사방에 일이 없고, 덕화대행하여 도불습유(道不拾遺)하더라.

태평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수십년 후에 대왕대비 승하하시니 시년 칠십삼이라. 왕이 못내 애훼하여 예절로 지내는 효성이 신민을 감동하시더라. 현덕능에 안장하니라. 왕이 장자 이녀를 두시니 장자 양이 내부의 풍도 있는지라. 신민이 다 산두같이 우러르거늘, 장자로 태자를 봉하시고, 열읍에대사하시 태평연을 배설하고 즐길새, 왕의 시년이 칠십이라. 술을 내어 반취하신 후에 칼을 잡고 춤추며 노래하시니 왈,
 칼을 잡고 우수에 비겨서니
 남명이 몇 만리뇨.
 대붕이 날아다니
 부요풍이 이는도다.
 춤추는 소매 바람을 따라 표표함이며,

우이 동편과 매복 서편이로다.
 풍진을 쓸어버리고 태평을 일삼으니
 경운이 일어나고 경성이 비치는도다.
 맹장이 사방을 지키었음이며,
 도적이 지경을 엿보리 없도다.
 하였더라. 이날 왕위를 태자에게 전하시고 다시 각읍에 대사하니라.
 도성 삼십 리 밖에 월영산이 있으되, 예로부터 선인 득도한 자취 왕왕이 머물
 어, 갈홍의 연단하던 부석이 있고, 마고의 승천하던 바위 있어 기이한 화훼와
 한가한 구름이 항상 머무는지라. 왕이 그 산수를 사랑하고 적송자를 따라 놓고
 자 하여, 그 산중에 삼간누각을 지어 백씨 중전으로 더불어 처하시며, 곡식을
 오직 물리치고 천지정기를 마셔 선도를 배우는지라. 태자 왕위에 직하여 일삭
 에 세 번 거동하여 부왕과 모비전에 문후하시더라.
 일일은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천지진동하며, 오색운무 월영산을 두르더니, 이윽
 하여 뇌성이 걷고 천지 명랑하며 선학소리 자자하더니, 대왕 모비 간 곳이 없는
 지라. 왕이 급히 월영산에 거동하여 보니 종적이 막연한지라. 망극한 마음을 이
 기지 못하사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호읍하시다라. 대왕이 양외를 현릉에 허장하
 니 사람이 다 이르기를,
 "우리 대왕은 선도를 닦아 백일승천하셨다." 하더라.
 왕이 백성을 사랑하사 덕화를 힘쓰니 일국이 태평하여 격양가를 일삼으니 성자
 신손이 계계승승하여 태평으로 지내고, 조선 홍승상택 대부인이 말년에 졸하시
 니, 장차 길현이 예절을 극진히 하여 선산여록에 장례하고 삼년초토를 지낸 후,
 조정에 집권하여 초입사에 한림학사 대간을 겸하고, 연속 승차하여 병조정랑에
 서 홍문관 교리 수찬을 겸하고, 연하여 승직하여 승상을 지내니라. 이렇듯이 발
 복하여 삼태육경을 지내니 영화 일국의 으뜸이나 매일 친산을 생각하고 동생을
 보고자 하되 남북에 길이 갈리어 슬퍼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미재라! 길동의 행어사여! 쾌달한 장부로다. 비록 천생이나 적원을 풀어 버리
 고, 효우를 완전히 하여 신수를 쾌달하니 만고에 희한한 일이기로 후인이 알게
 한 바이러라.

제시문은 ‘홍길동전’의 결말 부분으로 길동이 ‘율도국’을 세우고 이상적인
 정치를 펴며,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세상을 뜨는 부분이다.

학습자는 ‘홍길동전’의 작가인 허균이 살았던 조선시대에 대한 배경지식
 을 가지고 ‘율도국’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평가 및 답안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길동이 ‘율도국’이란 섬나라로 가서 ‘왕’이 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낙원 동경 의식의 구체적 실현 장소로서의 의미 또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길동이 세운 ‘율도국’이 유교적 덕목이 강조되는 유교적 신분사회이며, 유교에서 말하는 왕도정치(王道政治)가 구체화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세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적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① ‘개요 작성하기’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개요 작성하기는 「홍길동전」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설정된 논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쓰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로 인해 도출된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이다. 글의 개요를 작성함으로써 학습자는 다음 과정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거나 문자화시킬 수 있다. 개요 작성이 수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성된 논술문의 일관성, 응집성,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글쓰기에 필요한 분량과 시간적 여유를 꼼꼼하게 점검하여야 효과적인 개요작성과 글쓰기 준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논술문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호소하는 가장 빈번한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시간 부족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학습자들이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은 글쓰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관리에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면에서 개요작성은 글쓰기에 필요한 글감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상하고 수집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개요를 작성하여 실제 글쓰기 과정이 시간에 의해 위축되지

않게 하려면 학습자에게 적합한 구상 방법과 효율적인 내용 조직의 요령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문을 쓰기 위해 개요 작성이 이루어지는 50분 내외의 짧은 수업 중에는 이와 같은 이론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수업에 지장이 될 수 있다. 개요 작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별도의 재량학습수업이나 원리 설명을 위한 시간을 따로 확보하여 학습자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 과정에서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나 마인드맵(Mind mapping) 등의 방법은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언급되고 반드시 연습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이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의 틀을 적용하고도 빈곤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이유는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의 연쇄를 비효율적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문을 쓰기 위해 아이디어를 생성해야 하는 학습자는 단순한 나열식이 아닌 ‘문제발견과 해결과정 모색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논술의 문제 성격 자체가 문제발견과 해결과정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불필요한 연상의 시간과 사고의 과정을 최소화시키려면 논술문의 핵심 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디어를 생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그렇게 모인 아이디어들을 논제의 요구사항과 조건에 부합되도록 빠르게 조직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학습자는 문제 상황, 현상의 원인, 문제해결방안, 문제의 결과 등 되도록 일정하면서 단일한 기준으로 하위개념에서 상위개념으로 글감을 묶는 분류의 과정을 거쳐야 효과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하다.

개요 작성의 원리와 관련된 이러한 본고의 논의가 일반화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관찰해보면 대체로 개요 작성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이후의 내용조직하기와 표현

단계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논제가 요구하는 완성도 높은 논술문 작성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개요 작성하기는 언제나 강조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개요 작성하기 단계가 치밀할수록 논술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단계에서의 조정하기 과정은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가 설정한 범주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글감의 적절성과 일관성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 사실상 학습자의 핵심 표현과 중심생각이 반영된 어휘들이 구체화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된 어휘와 문장의 표현은 적절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적합한 글의 구조는 어떠한지 등의 논술문의 형식적인 측면까지 꼼꼼하게 고찰할 수 있도록 연습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논술문 쓰기’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논술문 쓰기 단계는 사실상 초고쓰기단계이다. 초고쓰기는 완결된 글쓰기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개요 작성하기를 통해 조직된 내용을 글쓰기 형식에 되도록 구애받지 않고 글의 전체 내용을 가능한 한 빠르게 생각나는 대로 쓰는 전략이다. 이 때에는 글씨나 맞춤법, 정서법, 문장 등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한 것을 일단 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수업 중 원고지를 나누어주고 완결된 글 쓰기를 지도하면 학습자는 대부분 원고지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생각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개요 작성을 통해 조직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추구하는 논술문 쓰기의 취지도 학습자가 텍스트를 독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한 결과와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글쓰기 원리에 치우쳐 기계적인 작문 연습을 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초고쓰기를 하는 동안 학습자와 교수자는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논술문쓰기의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고에서 문제해결과정의 수단으로 활용한 논술문쓰기가 유의미한 학습효과를 나타내려면 학습자의 효과적인 글쓰기 연습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초고쓰기를 시행하여 형식적인 글쓰기 원리의 적용을 최소화시킨 것도 현실적으로 많은 학습자들이 표현적으로 완성도 있는 글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술문의 표현하기와 관련된 지도는 전체 4차시의 계획된 수업과 병행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습자에게 피드백 되어야 하며 표현과 관련된 연습과 숙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내용 및 활동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계획안을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8〉 쓰기 단계의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명	논술문 초고 작성하기		차시	3/4	
학습목표	1. 효과적인 내용 조직과 구상을 통해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2. 개요 작성하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문제의 질문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기본적인 문장 표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학습자료	논술문 사례 1과 2, 원고지가 아닌 A4 용지				
단계	학습 형태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전체 활동	선수학습의 연계 및 글쓰기 방법	▶논술문 작성 시 유의점 설명 ·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의 구성방법과 개요작성의 필요성 및 요령 설명 · 원고지를 사용한 완결된 글쓰기가 아닌 초고쓰기의 취지 및 방법 설명	5분	글쓰기의 원리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

전 개	소 집단 협동 학습	개요 작성하기 및 논술문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시간과 같은 모듈로 자리 배치 ▶논술문 사례 1 또는 2 배포 ▶모둠활동을 통해 문제의 의도 및 방향 논의하기 ▶개요 작성하기 ▶논술문 쓰기 	47분	초고쓰기 활동을 관찰하여 문장 표현의 문제점 점검해 주기
정 리	전 체 활동	과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시 예고 · 논술문에 대한 자기평가 또는 상호평가 · 논술문제의 설명과 종합정리 ▶초고를 수정해 다음 시간까지 완성된 논술문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기 	3분	다른 구성원의 초고 및 논술문을 보고 베끼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

4.2.4 4차시 교수 · 학습 지도 계획안

① ‘자기 평가 또는 상호 평가하기’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평가하기는 쓰기 후 첫 단계에 속한다. 전통적인 글쓰기 교육에서 평가는 대체로 학습자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평가는 학습자의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는 일방적인 성격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전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수업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문학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독자적인 판단과 감상을 배려하는 수업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고전소설도 하나의 언어예술이며 문학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과정도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이행하기보다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문제점을 학습자 스스로 짚어나갈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소집단 상호 평가 방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술문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도 학습자의 성취도를 계량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가의 방법은 학습자 상호간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적극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과정 중심적인 성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러한 피드백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초고를 보고 크게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자의 평가는 사실상 단어 수준, 문장 수준, 문단 수준, 글 수준 그리고 정서법, 맞춤법과 같은 형식적인 표현 측면에 주목하는 지면첨삭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 및 논리와 관련하여 학습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상존한다. 따라서 평가하기는 초고를 검토하여 수정된 사항을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끝내기보다 간략 평가 기준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기 평가 또는 소집단 상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평가하기와 관련된 경험을 상기해 보면 교수자의 평가 내용이 간략히 표시된 특정 학생의 논술문을 배포물로 공유한 뒤, 수업에 참여한 다른 학습자들이 직접 평가 기준표를 통해 상호 평가해 볼 경우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것은 다른 학습자의 결과물을 통해 배우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은 어떠한 관점과 표현을 동원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경험이며 자신의 논술문과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후 보완해야 될 점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교수자 측면에서도 선택한 사례 논술문의 성격에 따라 대부분의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나 글쓰기 과정에

서 학습자가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적인 부분을 집약하여 지적해 줄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학습자에게 보다 적절한 내용과 표현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논술 평가의 기준과 영역은 논술문 쓰기의 취지에 따라 다양하게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논술문 쓰기의 취지는 논술문의 결과를 통해 배점을 나누고 점수화시키기 위한 변별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해결과정 학습의 경험과 이해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일반 평가에서 문제되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 목록을 분석적으로 세분화하기보다 전체 차시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강조한 학습목표와 제시된 논술문의 성격을 중심으로 실제 4차시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직접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호 평가 기준표를 구안하여 보았다. 이 상호 평가 기준표에 의해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의 논술문을 평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논술문의 성격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평가 기준표를 활용해야 할지 이해시키기 쉽고 수업 중에 적용하기 용이한 평가 기준의 목록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본수업의 성격상 글의 구성과 글의 표현 측면의 비중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글의 내용과 관련된 비중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표4-9〉 상호 평가 기준표

평가자	()학년	()반	이름()
① 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였다.			상----중----하
②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상----중----하
③ 주장이 선명하게 제시되었다.			상----중----하
④ 근거가 타당하게 제시되었다.			상----중----하
⑤ 문장의 표현과 연결이 자연스럽다.			상----중----하
⑥ 창의적인 관점이 반영되었다.			상----중----하

※아래 목록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논술문에 직접 표시하세요.

㉠ 마음에 들거나 내 생각과 비슷한 부분에 ☆를 하세요.

활동사항 ㉡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필요한 부분에 ?를 하세요.

㉢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표현을 고쳤으면 아는 곳은 √를 하세요.

㉣ 수정하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을 아래의 '내 의견 적기'란에 기록하세요.

내 의견 적기

더불어 이러한 동료간 상호평가가 가능하려면 전략적으로 '돌려 읽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돌려읽기는 다른 학습자의 결과물을 보고 직접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모둠 구성원이나 전체 학급의 대표 학습자가 작성한 내용을 보고 언어 사용과 글의 형식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독자의 입장에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돌려 읽기를 통해서 작가 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독자의 흥미를 고려했는지, 독자에게 설득력을 가진 글을 쓰고 있는지, 독특한 관점과 어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논술문의 경우 구상과 개요작성, 초고 쓰기 등 학습자가 경험한 각 단계와 그에 따른 전략들을 돌려 읽기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³⁴⁾ 돌려 읽기 자체가 전통적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협동학습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돌려 읽기의 원칙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동료협

34) 한기조, 「서사극의 논술교육 활용 및 지도방안 연구-이근삼의 <국물 있습니다>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74.

의를 위한 대표 결과물을 배부하여 공유한다. 교사는 시범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게 지도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② ‘수정하기’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정하기는 자기 평가 혹은 상호평가하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논술문을 일부 다듬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글을 다시 쓰는 과정이다. 사실상 수업에서는 논술문의 초고쓰기가 지도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과제로 스스로 제출할 글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자기평가를 통한 수정하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에서 학습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작성한 글의 결과물이 준비하기 단계에서부터 계획한 설정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 쓸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는 상투어나 무의미한 표현의 삭제, 접속어 및 지시어의 조정 등이 문장 수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문단의 구조가 적절한지, 아이디어의 배열은 타당한지, 중심 문장과 근거 문장의 첨가, 연결어의 첨가 등 문단 수준에서도 글 다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문장과 내용을 삭제하고 글 전체의 통일성 및 연결성 등을 확인하여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를 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글다듬기는 정확한 교정부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글다듬기는 학습자의 글쓰기 수준에 따라 초고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상호평가나 교수자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글을 다시 쓰는 등 단계적인 지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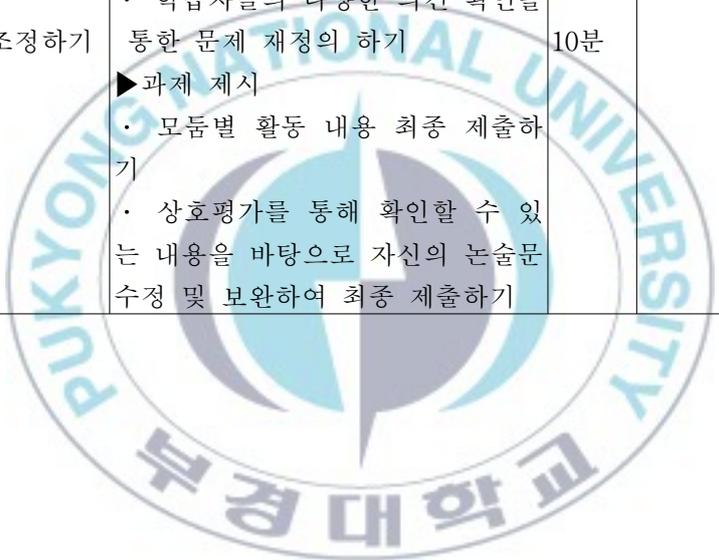
③ ‘문제 재정의 및 종합정리’의 지도계획은 다음과 같다. 문제 재정의 및 종합정리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학습자들의 논술문을 확인하고, 전체 4차시에 걸쳐 진행된 모듈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최종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전체 수업 과정 중에 발견된 학습의 어려움과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관련된 보충과 보완의 취지로 자유롭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어진 논술문제에 대한 해설과 제시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습자가 논술문쓰기의 방향과 지향점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해결안에 따른 문제의 재정의 및 종합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요 내용 및 활동을 바탕으로 4차시 교수 · 학습 계획안을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4-10〉 쓰기 후 단계의 4차시 교수 · 학습 과정안

단원명	평가하기와 종합정리		차시	4/4	
학습목표	1. 상호평가하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글쓰기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2. 논술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타당한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다. 3. 전체 수업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료	논술문 사례 1과 2, 상호평가 기준표, 학습자의 대표 논술답안				
단계	학습 형태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시간	유의점
도입	전체 활동	선수 학습의 연계	▶인사 및 주의 환기 ▶과제로 제출된 학습자들의 논술 답안에 대한 간략한 품평	5분	
전개	전체 활동	평가하기	▶논술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설 ▶상호평가와 돌려읽기의 방법 설명	35분	·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평가를 위한 자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대표 논술답안 배포 · 상호평가 기준표 배포 ▶ 상호평가하기 		
정리	전체 활동	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과정 및 취지에 대한 정리 · 학습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과 극복방법 설명 ·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한 문제 재정의 하기 ▶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활동 내용 최종 제출하기 · 상호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술문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제출하기 	10분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논술 교육의 한 방법으로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지도를 제안하고자 여러 이론들을 검토하였고,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 지도의 교수·학습 모형과 논술 쓰기의 절차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술의 본질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술에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구안해 보려고 하였다. 연구사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한 범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와 관련된 연구와 ‘논술 교육에 대한 기초 이론 연구나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였고, 그 특성과 의미들을 성찰하였다.

2장에서는 논술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논술의 본질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논술 교육의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3장에서는 ‘독서와 작문의 통합 지도 이론’을 통해, 소설 텍스트를 통한 논술문 작성 지도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표현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문제 중심·과정 중심 학습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논술지도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4장에서는 ‘고전소설’의 문학적 효용성과 가치가 논술지도에 일반 문학작품보다 더 효과적임과 「홍길동전」을 논술지도 텍스트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3장에서 검토한 이론을 바탕으로, 「홍길동전」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논술 지도 방안을 강구하였다. 교수·학습의 강구 과정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중심학습의 원리와 과정중심 글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모형을 새롭게

구안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서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가 고전소설의 감상 및 수용 과정에서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문제인식의 전략으로 사용하였으며 과정중심 글쓰기의 원리는 학습자가 도출한 의미와 문제의식을 실제적으로 조직하고 문자화시키기 위한 논술문 쓰기의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실제 수업은 교육현장에서의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4차시로 구분하였고, 각 차시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수 · 학습 지도 전략을 단계별로 성찰하고 그 결과를 교수 · 학습 과정안으로 정리하였다. 교수 · 학습의 지도 방법을 강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전체 학습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며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논술 교육과 관련하여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활용한 논술지도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논술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문학 감상과 논술문 쓰기가 긴밀하게 연결될 때 두 영역의 활동은 더욱 가치로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 · 학습의 모형과 수업의 실체는 교수자의 지도 계획과 학습자의 제반 여건 및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와 변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러한 방법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면서 그 효과와 관련된 점검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병행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활용 방법이 탐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인애 (1998),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연구 논총, 제 12집.
- 김기동 (1994), 『한국고전문학』, 명문당.
- 김상욱 (1996),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성배 (1957), 『신국어교육론』, 대학교과서주식회사.
- 김형규 (1965), 『새국어교육』, 제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권혁준 (1997),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 남청자·김경신 (2004), 『국어교육과 교육연극의 방법과 실제』, 박이정.
- 신헌재, 이재승 (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 이재승 (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 원진숙 (1995), 『논술교육론』, 박이정.
- 정문성, 김동일 (1998), 『열린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박영목 외 (2003), 『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 한국독서학회, 박이정.
- 한철우 외 (2001), 『문학중심 독서지도』, 대한교과서.
- 황정현 외 (2004), 『국어교육과 교육연극의 방법과 실제』, 박이정.
- Tony Buzan , 라명화 역 (1994), 『마인드맵 북』, 평범사.

2. 논문

김권섭 (1998), 「서사 텍스트의 논술텍스트 연계 지도 방안 연구- 등장 인물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삼승 (1999), 「중학생을 위한 논술문 쓰기 지도 방안」,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호 (2007), 「문제중심학습이 언어영역 학업성취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지영 (2006). 「문학을 활용한 논술지도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진 (2003), 「중학교 3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협동학습과 탐구학습의 혼합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류미루 (2007), 「과정중심의 고전소설 독서교육 방안-〈홍길동전〉을 대상으로 하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진선 (2005), 「문제중심학습에 의한 중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연구 -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미옥 (2004),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은중 (2005), 「교육연극을 통한 고전문학 교육방법 연구-〈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선 (2003), 「논술 지도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지영 (2004), 「문제중심학습의 뇌과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진주 (2003), 「과정중심 쓰기전략을 활용한 소설 창작 수업방안 연구-8학년 교과서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현숙 (2008), 「고전소설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대호 (2001), 「WBI PBL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교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성욱 (2000), 「협동학습을 통한 시 교수 · 학습 방법 연구-읽기와 쓰기의 통합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 마리아 (1993), 「중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복순 (2007), 「단계적 논술 실태와 논술지도 방법론 연구-독서 논술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경자 (2001), 「효과적인 논술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취희 (2002), 「협동학습을 통한 중학교 고전소설의 효율적인 지도방안-〈홍길동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기조 (2007), 「서사극의 논술교육 활용 및 지도 방안 연구-이근삼의 <국물 있습니다>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